



왕건과 공예의 전설이 전해오는 포천 명성산은 가을 바람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억새가 한창이다.

# 늦가을 억새춤에 마음 '내려놓기'

하얀 억새 꽃대가 가을바람에 흔들린다.

하늘을 비질하는 듯한 그 무욕의 몸짓에 따라 흔들려 본다.

색깔을 내려 놓은 억새마냥 마음도 내려 놔 본다.

폭 - 울 수 있을 것 같다.

## 포천 명성산·후삼국 통일 전설 자인사 답사

억새의 절정은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이삭이 떨어지지 않은 억새 꽃이 하얗게 일렁거릴 때다. 억새는 한반도 전역에 널리 퍼져 있지만 특별한 군락을 이뤄 밭길 끝을 흐르는 곳들이 있다.

경기 포천군과 강원 철원군의 경계인 명성산일명 울음산 923m은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가을의 전설'과 같은 슬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후삼국 시대, 왕건에게 패해 쫓겨간 공예가 이곳에 이르러 처지를 한탄하며 크게 울어 '명성(鳴聲) 산'이라 이름 붙였다는 전설이 있다.

억새 능선은 고집스럽게 이마를 쳐든 삼각봉의 9부 능선에 어마어마한 넓이로 펼쳐져 있다.

명성산이 억새의 명소로 더욱 이름을 날리는 이유는 주변 경관이 빼어나기 때문. 북한산의 김일성이 그 경치에 매료돼 별장을 지었다는 산정호수가 등산로의 시작이다. 산정호수 주차장 길 건너 왼쪽에 있는 등산

로 가든 길 옆으로부터 20분 정도 올라가면 등롱 꼭대기를 만나게 된다. 꼭대기 옆에 세워진 두개의 표지판을 보자 감동이 생긴다. 왼쪽은 억새능선까지 가파른길(1.0km), 오른쪽은 완만한 길(1.2km). 가보지 않은 가파른 길에 대한 아쉬움을 안은채 완만한 길을 택했다. 이곳에서 억새밭까지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 특히 곳곳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계곡미는 산행의 지루함을 덜어 준다.

억새능선에 있는 팔각정에서 정상까지도 등산로가 잘 닦여있어 하산하는데까지 정상에서 3시간이면 넉넉하다. 전방지역인 이곳에서는 사격훈련이 자주 실시돼 가끔씩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기도 한다.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산정호수관광지부 0357532-6135.

내려올 때는 팔각정에서 자인사쪽이 빠르고 좋다. 간간히 로프를 매달아 놓은 가파른 길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내려올 수 있다. 하산길에 만나는 자인사는

왕건이 공예와의 결전을 앞두고 산신령께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이 있는 절이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 한 후 신성암이란 암자를 세웠으나 풍고침락 등으로 소실된 것을 1964년 해공노인이 척고로 된 18척의 마목불을 조성하고 자인사(慈仁寺)라 이름 붙였다. 공예왕과 태조 왕건이 맺힌 악연을 풀고 마목세계를 구원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경내에 들어서면 왜소한 대웅전에 비해 턱없이 큰 석불(포대화상, 인덕불, 미래불이 웃음을



포대화상이 반갑게 맞아주는 자인사.

산행을 즐기려고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등산객들이 붐빈다.

포천=김주일 기자 kimji@buddhapl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ns003@buddhapla.com

## 전국 억새명소

하늘→화왕산

### ○사자평고원(경남 밀양)

#### ○억새오름길(제주도 남제주군)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와 성읍민속마을을 잇는 1119번 지방도 구간은 제주도의 가을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코스이다.

흔히 억새오름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멀리 한라산을 가운데에 두고 동서방향으로 봉긋봉긋 솟아오른 오름들과 가을바람에 살랑대는 억새가 조화를 이뤄 한쪽의 풍경화를 연출한다.

△가는길: 제주시-표선 간의 동부산업도로(177번 지방도)를 타고가다 성읍민속마을에서 성산읍 수산리로 가는 1119번 지방도 이용

#### ○오서산(충남 홍성)

장항선 광천역에서 불과4km거리에 있어 수도권에서도 손쉽게 갈 수 있는 오서산(791m) 억새산행의 최대 매력은 산의 기풍과 바다의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 넘실대는 억새의 출사위 너머로 아득히 펼쳐진 서해안 다도해의 정경이 곁을 길게 붙는다. 오르는 길에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단풍길도 이어져 있다. 산 정상 부근의 2km에 달하는 주능선이 은빛 억새로 뒤덮여 있다.

△가는길: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광천읍-담산리 상당마을

#### ○화왕산(경남 창녕)

산 정상(757m)의 10리 억새길이 장관이다. 자하골 매표소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화왕산 산행은 진흥왕순수비가 있는 창녕여중을 거쳐 통도사의 부속암자인 도성암으로 이어진다.

6만여평의 화왕산 억새밭은 등골의 대초원을 방불케 할 만큼 광활하다. 산의 최정상인 배바위 위에 오르면 드넓은 억새밭이 한 눈에 들어온다. 화왕산 억새밭을 한 바퀴 도는 데는 한 시간 남짓 걸린다.

△가는길: 구마고속도로 창녕IC→자

사자평고원은 영남알프스의 한 봉우리인 재약산(1,108m) 정상에 동남쪽에 위치한 대평원. 국내 최대의 억새 군락지다. 예로부터 억새밭의 아름다움을 재약산 8경중의 하나로 꼽아왔다. 가지산과 재약산 사자봉의 사이를 잇는 이 고원은 해발 700-800m 높이에 넓이는 125만여평에 달한다. 사자평으로 오르는 방법은 표충사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길과 쌍곡포를 지나 고사리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첫번째 길은 20-30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지만 고개가 가파르고, 쌍곡포로 돌아가는 길은 완만하다. 고사리마을에서는 첫길을 따라가면 된다.

△가는길: 경부고속도로 언양IC로 나와 24번 국도 밀양 방면으로 간다. 열을 글 입구를 지나 산외면 금곡리에 서면 최화전. 1049번 지방도를타고 가면 표충사다.

○민동산(강원 정선)  
민동산(1117m)은 이름처럼 험한 산이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매기가 달라진다. 해발 800m의 발구덕 마을에서 정상부위까지 억새밭이 이어지고, 정상 너머에도 역시 억새평원이 광활하게 펼쳐져 금빛 물결이 울려퍼진다.

△가는길: 중앙고속도로 서제천IC→5번국도→제천→영월방향 38호 국도→영월→31.38.59번 국도 병합구간→석항리→59번 국도로 계속 직진→별어곡→4.8km→증선초등학교

#### ○무등산(전남 광주)

가을철의 무등산(1187m)은 암화색 기암괴석과 눈처럼 흰 억새가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보여준다. 특히 장날 제 일대의 출렁이는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가는길: 호남고속도로→광주 IC→증심사 입구

## 여행메모

### 🚗 찾아 가는 길

〈자가용〉 11서울 수유리-43번 국도의정부 경유-신원원 방향-산정호수 2 서울 워커힐-47번 국도(구리-퇴계원 경유)-일동-산정호수(1인당 입장료 1천원, 주차료 1천5백원) <대중교통> 서울 상봉터미널(02-435-2122,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나 1호선 의정부역에서 혹은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천행 버스를 탄다. 운천에서 1일 7회 운행하는 산정호수행 시내버스 이용.

### 🏠 운천

운천읍으로 산행의 고단함을 잊어보자. 산정호수 입구의 한화론도 운천(031-534-5500), 신북면의 신북운천

031-535-6700, 일동면의 제일운천(031-536-6000) 일동싸이판(031-536-2000)이나 일동용암천(031-536-4600) 등이 있다. 시간은 대개 평일 오전 5시30분부터 밤 8시30분까지이며, 저녁 7시에 대표마감 한다. 가격은 모두 5천원이다.

### 🍲 이백 불고기

자인사 앞 산정호수 변에는 2년 전 문을 연 '허브와 야생마을'이 있다. 비닐 하우스에 40여종의 허브를 재배하고 있어 안에 들어가면 향긋한 허브 냄새에 산행의 피로가 싹 가신다. 캐모마일, 라벤더,

로즈마리, 자스민 등 각종 허브차를 차실에서 마실 수 있다. 차 값 4천원, 이외에도 오일, 비누, 향, 방향제 등 허브 가공 제품을 살 수 있다. 031)532-5153

### 🍲 먹거리

일동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다가 기산 삼거리에 있는 권동주막(031-533-6002)은 국산 콩만을 고집하는 두부 요리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보리밥에 금방 풀인 순두부와 편직찌개 국물을 얹고 야채와 고추장 한 숟가락에 들기름을 넣고 푹푹 비빔 후 먹으면 으깨진 순두부 때문에 부드럽게 넘어간다. 순두부 비빔밥 5천원, 두부김치 5천원, 인근에 있는 원조 파주말 순두부(031-532-6590)도 두부요리 전문식당. 순두부 1인분 3천원.



# 세계로 가는 길

같은 혁신과 변화로 앞서가는 포스코 - 최고의 경쟁력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의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이 가야 할 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투명경영, 디지털경영, 스피드경영 등 변화와 혁신으로 달려온 민영 포스코의 두 줄, 당당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 언제나 앞서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민영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 2년- 세계철강 1강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